

# 해방기 한국영화 속 도시주거풍경에 대한 융합적 연구

문근종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The Scenery of the Urban Residence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the Liberation Period

Guen-Jong Mo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College of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기(1945~1950)의 한국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풍경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산물인 영화가 당대의 인간 행위, 주거문화, 도시풍경 등을 반드시 투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고찰을 위해 1946년부터 1949년까지에 해당하는 7편의 작품들이 선정되었으며, 각 영화의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대사, 관련 신문기사나 평론, 시나리오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 영화 속에서 도시주거풍경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문화적 혼란 속에서도 아파트나 문화주택 등 서구적 주거공간들이 조명되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동경과 호기심을 반영한 결과였다. 둘째, 서울 도심의 구석구석이 의도적으로 비추어졌는데, 이는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장안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이며 서울의 풍경 자체가 관객들에게 전시물이었다.

주제어 : 풍경, 도시주거, 융합, 한국영화, 해방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enery of the Urban Residence'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the liberation period. It is assumed that public films reflect the human activities, residential culture and cityscape of those days. For the analysis, a pool of 7 Korean films from 1946 till 1949 was constructed. In these films, the sceneries of the urban life were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1) The western-style architectural spaces, such as cultural residence and apartment were emphasized to reflect the longing and curiosity of the general public for modern culture and lifestyle. 2) The cityscape including a narrow alley, crossroads and modern buildings was intentionally represented to express visually the city of Seoul under the slow wave of modernization.

**Key Words** : Scenery, Urban Residence, Convergence, Korean Films, Liberation Period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제강점기의 끝, 기다리던 광복이 1945년 8월 찾아왔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남북 분단 상황과 사회/문화적 혼란이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여유는 없었

고 남한에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서구지향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게 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히 미국화, 근대화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문화적으로는 미국 영화 등 대중문화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1].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도시적 삶의 모습, 즉 도시주거풍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5A8020392)

\*Corresponding Author : Guen-Jong Moon (gjmoon@kmu.ac.kr)

Received January 30, 2018

Revised March 22,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건축 관련 문헌 등이 아닌 우리의 대중영화들이 선택되었다.

해방기(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약 5년간)의 주거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이후의 주거문화 연구에 비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지금까지 상당히 빈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주거풍경’이라 함은, 건축물, 가로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요소에 의한 경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삶, 정경, 문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한다[2].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기(1945~1950)의 우리 대중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풍경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산물인 영화가 감독의 연출의 도뿐 아니라 당시의 인간 행위, 주거문화, 도시풍경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영화가 가정문화, 공공공간, 기념물, 풍경 등 도시·건축에 대한 대중의 감정과 생각 또한 반영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3].

이는 영화에 표현되는 시각적 장면들과 그에 담긴 의미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고로 본 논문은 영화를 매개로 한 건축학적, 인문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영화학, 건축학의 학제 간 연구, 융합적 연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영화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4].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해방기’는 광복에서 정부 수립 직전까지의 3년만으로 잡는 입장과,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5년을 잡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방의 감격과 조국 건설의 기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많은 분석 대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방 5년을 잡는 관점에 서기로 한다. 이 해방기는 정부 수립(1948년 8월)을 기점으로 해방 전기와 해방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해방 전기는 이른바 ‘광복영화’의 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36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감격과 민족 긍지를 영화로 나타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안중근 사기>(1946), <윤봉길 의사>(1947) 등 민족의 기개를 떨친 인물이나 독립투사들에 대한 것과 <자유만세>(1946) 등 해방과 새 조국 건설에 대한 기대를 극화하는 영화들

이 앞다투어 제작되었다.

해방 후기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북한의 실정>(1949), <성벽을 뚫고>(1949) 등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분단의 비극에 관한 영화들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변사의 신과조 해설로 유명한 <검사와 여선생>(1948), 해방기 수작 멜로드라마 <마음의 고향>(1949), 뮤지컬 <푸른 언덕>(1949), 공중촬영을 시도한 <안창남 비행사>(1949) 등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영화 제작 편수는 해방 5년간 61편(1946년 4편, 1947년 13편, 1948년 22편, 1949년 20편, 1950년 전반기 2편)이었으나[5], 영상자료가 현존하는 작품은 <자유만세>(1946)부터 <안창남 비행사>(1949)까지의 단 7편뿐이다[6]. 이 7편의 영상작품들을 연구의 1차적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7편의 분석대상을 통하여 각 영화의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대사, 그리고 관련된 문헌들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적, 공간적으로는 영화의 각 장면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영화 속에 설정된 인물관련 정보와 주거 공간 및 도시적 배경에 대한 표현, 줄거리, 더 나아가 영화적 메시지까지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관련 신문기사나 평론, 시나리오 등의 문헌들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판과 대중들의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해당 영화의 시대적·문화적 의미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주거풍경’을 연구의 2장, 3장에서 살펴보는 방법으로서 아래의 3가지 분석 방식을 혼합, 활용하고자 한다. 1)영상에서의 주거풍경 관련 장면 추출, 2)영화 속 관련 내레이션이나 배우의 대사 내용 분석, 또한 3) 당시의 기사나 평론 내용 또는 최근의 영상작품 DVD에 수록된 해설·평론 등 텍스트 자료 참조 등이 그것이다.

## 2. 해방기 영화 기초 분석

스크린에 드러난 도시 속 주거풍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여기 2장에서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등장인물과 건축공간을 먼저 알아본다. 즉, 인물들의 성격(주로 직업)은 어떠한지, 그 인물들은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건축물과 도시적 배경들이 등장하는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1차적 분석대상 7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 2편이 드러났는데, 바로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과 <안창남 비행사>(노필, 1949)이다. ‘해방 후 조선영화의 최고봉의 신기록을 지은 수작’으로 평가받는 문예영화 <마음의 고향>에는 서울의 젊은 미망인(서울 아씨)이 등장하지만 영화 내내 한적하고 아름다운 산사의 정취만을 담아냈을 뿐 도시적 공간이나 배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안창남 비행사>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2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일본 동경(오쿠리 비행학교 등)이 주요 배경이다. 이 두 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5편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방기 영화의 기원이자 광복영화[7]인 <자유만세>(최인규, 1946)는 해방 직전 서울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한중)와 그를 치료해주는 간호사, 일본 경찰간부의 정부(미향) 등이 등장하며 주거공간으로서는 한옥과 아파트(미향의 방)가, 도시적 배경으로서는 서울 전경과 독립문, 청계천 다리, 대한의원 건물 등이 등장한다. 둘째로 <독립전야>(최인규, 1948)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날 하룻밤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전당포와 골목 안 빈 창고를 중심으로 노름하는 사람들, 아편쟁이와 형사, 신사와 기생, 밀수꾼, 불량배 등이 등장한다. 해방 후 한국사회의 뒷골목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셋째 <검사와 여선생>(윤대룡, 1948)에는 어린 창선의 판잣집과 검사가 된 창선의 서양식 주택이 대비되어 나타나며 또한 문화주택도 등장한다. 외부공간으로는 서울 주택가의 골목, 종로네거리와 화신백화점, 종로여관, 홍문당서점, 마포형무소 등이 등장한다. 넷째 <푸른 언덕>(유동일, 1949)은 시골 청년 명구가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 가수로서 대성한다는 줄거리의 음악영화인데 흥미로운 점은 명구군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물이 <자유만세>에 나왔던 미향의 아파트라는 것이다. 명구의 원룸은 근대적, 서구적으로 꾸며져 있으며 도시적 배경으로는 서울 시내의 거리, 명동성당, 명치좌 등이 나타난다.

마지막 다섯째 작품인 <청춘행로>(장형연, 1949)에는 시골 초가집과 함께 그에 대조되는 서울 돈암동 부호의 기와집이 등장하며 또한 서울의 전경, 성당, 한강철교, 병원의 병실 등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 해방기의 주요 분석대상 5편에 등장하는 공간적 요소(건축공간과 도시적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아파트나 문화주택, 서양식 주택 등을 비추면서 전통적 주거형식인 초가집, 기와집 등과 대조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서울 풍경을 스크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 높은 곳에 위치한 카메라가 서울의 전경을 비추거나 전차, 자동차, 인파의 거리와 근대 건축물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기초 분석과 함께 각 영화의 주제와 스토리, 사회문화적 맥락, 해당 평론 등 5편의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방기 영화 속의 도시주거풍경은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먼저 서울에서의 근대적·서구적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삶에 대한 대중의 동경과 호기심이 아파트, 문화주택 등의 근대 주거건축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으로는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서울 장안의 모습이 뒷골목에서부터 종로네거리까지, 그리고 판잣집에서부터 근대건축물까지 가감 없이 전시되었다.

### 3. 해방기의 도시주거풍경

#### 3.1 서구적 생활방식과 근대건축

해방기의 우리 영화들은 사회적, 문화적 혼돈과 빈곤 속에서도 전통적인 주거형식과는 다른 근대 주거공간들을 조명하였는데, 이는 대중의 호기심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었다. 먼저 <자유만세>(1946)에는 28세의 미혼인 미향이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녀가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이다. 미향의 방 내부는 호화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서구적 생활방식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녀의 방 풍경은, 부엌이나 화장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Fig. 1의 좌측 장면과 같이 화장대와 침대, 응접테이블, 그리고 피아노가 병렬로 배치되어 있어 침실과 거실의 기능이 합해진 원룸의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유만세>의 시나리오에는 당시 ‘아파트’와 ‘방’이라는 호칭의 쓰임새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다음은 해당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S#14. 아파트의 미향의 방 (밤)

(미향은 침대에 누워서 담배만 뻑뻑 빨고 있다.)

S#32. 아파트 안 (밤)

(한중은 문안으로 들어서서 층계 한편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내다본다. (중략) 마침 조선옷을 입은 미향이 꽃병을 들고 자기방으로 들어간다. 한중은 반사적으로 미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S#33. 미향의 방 (밤)

(방으로 들어서서는 한중을 보고)[8]



Fig. 1. Interior view and Exterior view of Mihyang's apartment <Hurrah! For Freedom>(1946)

여기서 '아파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파트 주출입구를 지나 복도나 계단을 마주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당시의 '아파트'는 3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를 가리키며 그 안의 각 세대는 '방'이라 불렀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의 '아파트 한 채', 또는 '홍길동의 아파트'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9]. 또한 '방'이라 불린 것으로 보아 원룸형식의 단위세대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Fig. 1의 왼쪽 장면들과 일맥상통한다.

미향의 아파트 건물은 촬영용 세트건축이 아닌 실제의 건물인데, Fig. 2에서 보듯 모더니즘 양식이 적용된 일제강점기 아파트건축의 외관과 유사한 모습이다[10]. 하지만 당시의 건축전문지 등 문헌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건축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고전 영상자료에 대한 고찰은 그 시각적 보존성 때문에 주거 문화에 대한 역사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1].



Fig. 2. Exterior views of the Apartments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한편 <자유만세>의 미향은 수입이 많지 않은 보따리장사(하꼬비)를 하고 있으며 또 미향에게 찾잔을 빌리러 가끔 오는 이웃으로 강유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역시 미혼의 여급이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 아파트는 서구적 생활공간의 이미지와 함께 독신자형 거주로서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이는 1949년 영화 <푸른 언덕>(The Blue Hill)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 명구(현인 분)의 거처는 영화 속에서 '아파트'로 불리지는 않지만 <자유만세> 미향의 아파트와 동일한 건물로 설정되어 있다. 명구의 거처는 한쪽에 간이침대가 있는 원룸형식인데 Fig. 3에서 보듯 벽에는 베토벤 사진이 걸려있고 책상과 테이블, 스탠드 조명, 화려한 문양의 커튼, 많은 유리창 등 서양식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Fig. 3. Interior views of Myung-gu's room <The Blue Hill>(1949)

<검사와 여선생>(1948)의 주요 스토리 전개는 가난한 국민학생 창선이가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창선 거처의 변화인데, 부모님 없이 아픈 할머니와 어린 창선이 살던 곳은 차디찬 방바닥의 판잣집이다. 이후 열심히 공부한 창선은 대학생이 되어 한 어련이의 가정교사가 되는데, 이때 방문하는 곳이 '원앙 문화주택'(Fig. 4의 왼쪽)이며, 검사가 되어서는 아내와 함께 서양식 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검사의 고급주택은 Fig. 4의 오른쪽 장면에 나타나있는데, 이 또한 서구식 '문화주택'이다. 1920년대 일본의 도시 중산층들에게 문화주택으로 받아들여졌던 교외주택(정원이 딸린)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도입되었으며 1930

년대에 들어서 문화주택은 서양식과 일본식, 한식이 절충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2층 양옥과 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 등 문화주택은 상류층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다[12].



Fig. 4. The Cultural Residence and the Prosecutor's House <A Public Prosecutor and a Teacher> (1948)

영화 <청춘행로>(1949)는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은 촌색시의 고난기를 다루고 있는데, 시골의 초가집, 원두막과 대조를 이루는 서울의 주택은 돈암동 52번지에 위치한 부호의 기와집이다. 앞서 살펴본 검사의 서양식 주택, 원앙 문화주택과는 다른 형식의 문화주택(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이라 할 수 있는데, 외견상으로는 전통적인 기와집을 띠고 있지만 거실에는 소파와 원형테이블이 놓여 있고 식구들은 입식으로 생활한다. 넓은 정원에 연못까지 딸린 저택이다.

### 3.2 전시되는 서울 풍경

해방기의 우리 영화들은 서울 도심의 구석구석을 고의적으로 비추었는데, 해방 직후의 사회문화적 혼란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장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뒷골목에서부터 청계천을 지나 변화한 종로네거리까지, 또 판자집에서부터 명치좌와 명동성당까지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때로는 사건과 행위의 장소로서, 때로는 시각적 배경으로서 기능하였다[13]. TV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대중에게 서울의 경관이 직접적으로 제공된 것인데 한마디로 서울 자체가 전시물이었던 셈이다.

먼저 <독립전야>(1948)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떠나 당시 한국사회의 혼란과 어두운 뒷골목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이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빈 창고를 무대처럼 설정한 다음(Fig. 5 참조) 여러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형식이다. 권투 장갑을 낀 젊은이 둘은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인다. 결투 후 한 취객이 창고로 들어와 자고 이어 주정뱅이 남편을 찾아 한복

입은 아내가 들어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름꾼들, 아편쟁이, 형사, 신사, 기생, 밀수꾼 등이 등장한다. 이는 지극히 연극적인 구성인데, 이 '연극'이라는 단어는 주인공들의 대화에서도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근데 이 창고는 괴상한데요?”(선희) “이곳은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인생극장이죠. 마침 전등도 연극처럼 꺼지고.”(경일) “그래요 참, 인생은 연극이예요. 연극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필 이런데서 이렇게 만나요?”(선희) “연극으로 알지 않고서는 이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답니까?”(경일)



Fig. 5. Storehouse and Ending Scenes from <The Night before Independence Day>(1948)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이 영화 속에서 '괴로운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서서히 나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표현·기대하기라도 하듯 영화의 중반 주인공들의 갈등은 해소되고 누군가는 참회하며 결국 Fig. 5의 오른쪽 아래 장면과 같이 젊은이들이 한강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 삶의 장소로서의 사실적 풍경, 또는 호기심 충족을 위한 전시물로서의 근대적 풍경은 <독립전야>를 제외한 다른 영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유만세>의 독립문과 청계천, 대한의원 등이며 또 <푸른 언덕>에서 볼 수 있는 명동성당과 명치좌의 모습 등이다. 특히 <검사와 여선생>에서는 주인공들의 동선을 따라 판자촌과 흥문당서점, 종로의 한 빵집, 종로여관, 마포형무소 등이 조명되며 근대적 풍경으로서의 종로네거리와 화신백화점, 서양식 문화주택 등이 쉴 새 없이 펼쳐진다. Fig. 6은 영화 속 장면들이다.



Fig. 6. Cityscape from <A Public Prosecutor and a Teacher>(1948)

#### 4. 결론

대중영화는 당대의 인간 행위와 주거문화, 도시풍경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4], 해방기(1945~1950)에 해당하는 7편의 영상 작품들을 분석하여 당시의 도시주거풍경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학과 인문학, 또 주거학까지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에 대한 시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15], 연구 본론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해방기의 우리 영화들은 사회문화적 혼란과 빈곤 속에서도 전통적인 주거형식과는 다른 아파트나 문화주택 등 서구적 주거공간들을 조명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삶에 대한 일반 대중의 동경과 호기심을 반영한 결과였다.

둘째, 해방기의 영화들은 서울 도심의 구석구석을 의도적으로 비추었는데,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장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며 서울의 풍경 자체가 관객들에게 전시물이었다.

지금까지 제한적인 산물인 '영화'만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점, 또한 분석대상이 7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라 판단되나, 관련 서적,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아닌 영상매체를 분석·해석함으로써 영화/인문/건축학 연구 영역의 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나름의

의의라 생각된다[16]. 더불어 해방기 건축물들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발굴한 것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작은 성과라 생각된다.

주거문화 연구에 있어 지금껏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이 두 시기 사이에 놓인 '해방기'를 사회문화적으로 고찰하는데 본 논문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 [1] M. H. Kim. (2006). *History of Korean Films*. Communication Books, Inc., 39.
- [2] G. J. Moon, E. G. Seo. (2010). The Use of Urban·Architectural Elements in Michelangelo Antonioni's Film - Focusing on the Cityscape of 1950·60s Ital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6(11), 294.
- [3] J. Steven. (2007). *The Wrong House: The Architecture of Alfred Hitchcock*. 010 Publishers, 10.
- [4] W. S. Park. (2014). *2014 Seoul Photo Festiva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9-14.
- [5] M. H. Kim. (2006). *History of Korean Films*. Communication Books, Inc., 105-106.
- [6] <http://www.kmdb.or.kr>
- [7] KOFA. (2013). *List of 100 Korean Films*. Korean Film Archive, 37.
- [8] Korean Film Council. (1982). *Korea Scenario Collection vol.1*. Jipmoondang, 277-283.
- [9] G. J. Moon. (2013). A Study on the Images of Apartment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78-79.
- [10] W. G. Shim, S. H. Kang, S. J. Yeo. (2002). Korean Apartment Housings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9), 163.
- [11] G. J. Moon. (2013). A Study on the Images of Apartment Housing through Korean Films in 1930~6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9(4), 151.
- [12] N. I. Jeon, S. H. Yang, H. O. Hong. (2009). *Microhistory of Korean Dwelling*. Dolbegae, 53-141.
- [13] E. T. Jeong, K. H. Jung, H. J. Song. (2016).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Post-Modern aspects and storytelling from Imaging Content Produ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177-184.

DOI : 10.15207/JKCS.2016.7.6.177

- [14] G. J. Moon. (2017). The Scenery of the Modern City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1930-40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59-165.  
DOI : 10.15207/JKCS.2017.8.4.159
- [15] S. M. An. (2015). Study on the Convergence between Spatial Design Education and On-Offline Communication Metho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317-327.  
DOI : 10.14400/JDC.2015.13.5.317
- [16] G. J. Moon. (2017). The Convergence Study of the Cinematic Gaze Represented in Seojong MA-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293-300.  
DOI : 10.15207/JKCS.2017.8.9.293

문 근 중(Moon, Guen-Jong)

[정회원]



- 2002년 11월 : 런던대학교 Master of Architecture 과정 (건축설계 전공 석사)
- 2013년 0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14년 0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영화, 도시, 풍경
- E-Mail : gjmoon@kmu.ac.kr